

교회소식

1.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요란함에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2. 제직회는 회계사의 오미크론 확진으로 자료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준비된 즉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3. '예수 중심 성경 읽기' 전교인 성경 통독 6주 차 이번 주 묵상 범위는 구약 레위기 16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입니다.
4. 매주 수요일 공동체별 성경 인물연구가 화상(Zoom)으로 있습니다 (캄보디아 - 스테반, 오후 8시).

공동체	성경인물	공동체	성경인물
캄보디아	스테반 (행 6:5-15, 7장)	터키	바나바 (행 11장)
통가	빌립 (행 8장)	일본	디모데 (딤후 1장)

5. 인도자 성경공부가 오는 3월 18일(금요일) 오후 8시에 화상으로 있습니다(교재 참조).
6. 지난 주간예 한상순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7. 한상순 집사님 장례에 한마음으로 협력한 성도들에게 감사사를 드립니다.
8. St Luke's 교회(130 Remuera Rd)측과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이 오는 15일(화) 12시에 St Luke's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M a r c h

교회사역일지
 3월 6일(주일) 사순절 첫째 주일
 3월 8일(화) 인도자 성경공부(Zoom)
 3월 27일(주일) 성찬 주일

기도순서

3월 20일 (주일) 박병민 장로
 3월 23일 (수) 가정 예배
 3월 27일 (주일) 손조훈 집사
 3월 30일 (수) 가정 예배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손조훈, 김영아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211 Great South Rd,
 Greenlane,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3:30 pm
 청년예배 3:30 pm
 유아부 3:30 pm
 아동부 3:30 pm
 청소년부 3:30 pm
 수요일예배 -
 목요기도 7: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4권 11호 2022.03.13

주일예배 오후 3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시편 63:1-3 ----- 인도자

*찬송 ----- 28장 ----- 다함께

*참회의기도 ----- 다함께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함께

찬송 ----- 288장 ----- 다함께

대표기도 ----- 김병진 목사

성경봉독 ----- 요한복음 1:4-5 ----- 인도자

찬양대 찬양 ----- 속죄하신 구세주를 -----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 예수 안의 생명 ----- 이태한 목사

찬송 ----- 예수 안의 생명 ----- 다함께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 다함께

*응답송 ----- 411장 (1,3절) ----- 다함께

*축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캄보디아 이형식, 이은주 선교사 소식입니다.

오미크론의 창궐 속에 강건하신지요? 저희 선교사 부부도 3차 부스터 샷 백신 접종 완료했습니다. 모두 건강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사역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의료복지사역:

1) 코로나가 극심했던 지난 2년여간에 생명나무 장로교회와 껌뽕스프 생명나무 교회가 자리한 다섯 개 마을을 중심으로 마스크와 알코올을 구입해서 두 개 교회의 교우와 가정은 물론, 주변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나눔을 갖고 위로하고 심방하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2) 생명나무 장로교회는 특별히 성도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이웃의 극빈 스무 가정을 초청하여 '코로나 19 상황 구제사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면장과 이장 여러 관리들의 감사와 더불어서 함께 한 이웃들의 고마움과 감사의 표시에 교우들도 뿌듯함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 껌뽕스프 생명나무 교회는 세례를 받은 청소년 '빼잇은'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치루었고 캄보디아의 서울대학 적인 프놈펜 왕립 대학교 '크마예학과' 4년 장학생 입학의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부 홀로 두 딸을 양육하는 어머니가 공장으로 보내 돈 벌게 하려 했던 것을 저희 부부가 적극 만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사가 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꿈을 이루고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교육 사역: 생명나무 유치원 이름으로 NGO 월드 디아코니아 & 망고나무 출판사와 연합하여 6,700권의 도서기증 사역을 했습니다. 생명나무 센터와 생명나무 장로교회가 속한 관내 버싸엔 군청 교육부에 소속된 42개 초등학교와 8개의 중학교에 각각 140여권 3-5세트 6424권의 책을 교육부를 통해 전달하고 나머지 276권은 생명나무 유치원이 속한 관내의 2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에 별도로 교장선생님을 만나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은주선교사:

1)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면접이 있습니다. 본인 별도의 유치원과 현장이 있기에 우선 시간강사로 시작합니다. 캄보디아 유아교육 발전과 교사 양육 및 교재 개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백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2) 코마 캄보디아 (KOMA Cambodia) 운영위원으로 함께 사역하면서 교사 양육과 교재 개발에 참여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 사역과 더불어서 보다 넓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역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기도제목

1. 캄보디아 유아교육에 최적화된 교재가 출판되고 양질의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2. 공립학교 도서기증 사역을 통하여 캠퍼스 전도 사역의 길이 열리도록

목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청소년부실)

찬	양	-
성	경	마가복음 1:29-31
경	봉	심방 하시는 예수님
설	교	이태한 목사
기	도	-

나눔란

2022년 3월 6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1-3

신약성경의 4개의 복음서 중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공관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헬라인들을 위해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변증하는 공관복음의 해설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은 연대기적인 기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20:31)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구합니다.

1)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1)라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말씀'(Word, Logos)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심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에게 우주 만물의 근원과 섭리 질서는 Logos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1:14) 것에 서 알 수 있듯 '말씀은 곧 성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현재 내 삶을 이끌어 가는 중심 축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에 익숙하다 해도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2) 말씀이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2-3).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헬라인들에게 "Logos-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또한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골 1:15-16) 선포하며 사도 요한의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던 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원주로 고백한 베드로처럼 오직 믿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구원주로는 알지 못했던 Albert Schweitzer 슈바이처 박사처럼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3)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인식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요 1:18).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요 14:9). 배고픈 무리를 오병이어로 먹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고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마 14:16). 혈루증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막 6:34). 죽은 나사로와 울고 있는 가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심령과 나의 인생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길 갈망하며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사순절을 십자가 앞에서 깊은 자기 성찰과 묵상으로 채우는 성도들이 되도록.
2. 사람과의 관계보다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루어지도록.